

綠
線

자연을 두드리다

綠線 자연을 두드리다

2025 Vol.5



<綠線, 자연을 두드리다>
웹진을 만나보세요



<綠線, 자연을 두드리다>는 친환경 인쇄공정으로 인쇄합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녹색문화 확산을 실현합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5 Vol.5



가벼워진다
바람이 가벼워진다
몸이 가벼워진다

이곳에
열매들이 무겁게 무겁게
제 무게대로 엉겨서 땅에 떨어진다

오, 이와도 같이
사랑도, 미움도, 인생도, 제 나름대로 익어서
어디로인지 사라져간다

-마중기, <가을>



표지 그림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알파인하우스로 높은 산에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희귀한 고산식물들을 한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알리움, 클루시아나 '레이디 제인', 우르미엔시스 톨립, 후밀리스 톨립, 프리플러 율리에, 년출월굴은 알파인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지금 여기, 한수정

정원의 서랍

오대산을 걷다, 자연을 품다
- 오대산 순례길과 함께하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4

초록이 머무는 곳

숲으로 모이고, 지역과 더 가까워지는 축제
- 봉자페스티벌 & 가든하이킹 8

내가 한 수 위!

'봉자' 비하인드! 봉화에 활기를 채운 숨은 주역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고객서비스실 12

이색 토크

서로를 생각하며 케이크를 빚는 시간
- 한수정 직원들의 플라워 케이크 만들기 16

초록 동행

자연이 걸어온 시간의 흔적을 가까이에 두는 일
- 분재 전문가 우수형 교수 20

한수정 FOCUS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의 글로벌 허브로 26



바로 곁에, 한수정

산책할까요?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정원이 되는 곳
- 산이정원 30

식물치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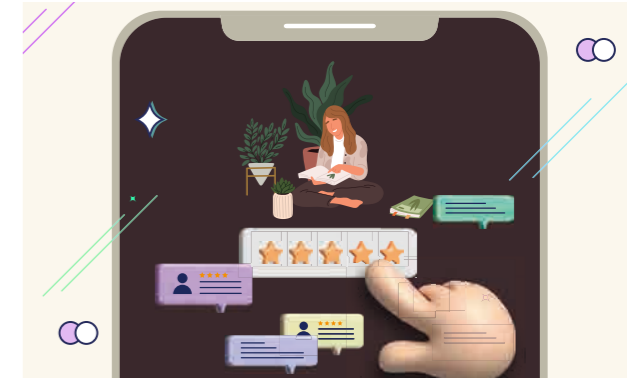
가을과 겨울, 수목원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 32

전문가가 본 한수정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조우(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34

해외 수목원 탐방

살아 있는 나무 박물관, 미국 모튼수목원 36



함께 웃는, 한수정

초록 한 스푼

독자 QUIZ 이벤트 40

#만족도 조사 이벤트

사보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41

발행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발행인 심상택
편집인 대외협력실
발행일 2025년 12월
주소 (30106)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136
전화 044-270-5005 홈페이지 www.koagi.or.kr
기획·디자인·인쇄 위고디자인 02-2039-7345
표지일러스트 설윤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발행한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는 친환경 인쇄공정으로 제작합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녹색문화 확산을 실현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원이 서랍

저금 여기, 환수정



올가을, 백두대간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켄싱턴 호텔 평창과 함께 '치유·문화의 순례길' 스탬프 투어를 시작했다. 불교문화의 역사성과 자연생태 탐방을 조화롭게 잇는 이 순례길 중 2코스의 출발점은 바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다.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물들로만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자생식물원으로서, 순례길과 연계해 숲과 자연을 한층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글 | 편집실

오대산을 걷다, 자연을 품다

- 오대산 순례길과 함께하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01. 첫 번째 스탬프는 '자생의 숲'에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오대산 순례길 여권'을 받는 순간부터 작은 모험이 시작된다. 각 지점을 찾아 도장을 찍다 보면 자연·역사·문화가 한 코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순례길은 두 개 구간으로 운영된다. 먼저 1구간 '오대산 치유 순례길'은 천년의 시간 위를 걷는 길이다.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 적멸보궁, 오대산의 비로봉 그리고 깊숙한 산중 암자들이 지— 오대산의 오랜 불교문화와 치유의 기운을 고스란히 품었다.



🔔 순례길을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

입장료 할인

실물 스탬프여권 소지자(동반 2인 포함, 최대 3인)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입장료 50% 할인
기간: ~ 2026.12.31.

완주 기념품 증정

1코스 / 2코스 / 전 코스 완주 탐방객에게는 완주 기념품 제공(제품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오대산 순례길 홈페이지 (odaesan.kr)



무료 교육 프로그램
자생식물 컬러링

전 연령 대상 | 20분 소요

자생식물의 형태를 관찰하며 도안을 색칠해보는 프로그램! 막상 시작해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식물의 디테일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온다. 짧은 시간에도 자연의 색과 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왜 이 컬러링 체험이 많은 방문객들에게 '소확행 힐링 코스'로 사랑받는지 금세 알게 된다.



2구간 '오대산 문화 체험길'은 조금 더 다채롭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록·의궤 원본을 볼 수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보급 불교 유산이 가득한 월정사 성보박물관, 한강의 기원을 만나는 한강시원지 체험관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까지 이어진다.

탐방객들은 총 11개 지점에 설치된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가며 자신만의 순례길 여권을 채워 나간다. 도장이 찍히는 '탁' 소리와 함께, 그날의 풍경과 순간들도 차곡차곡 마음에 남는다.

지금 여기, 한수정

02.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교육 프로그램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순례길과 연계해 숲과 자연을 한층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점토로 나만의 화분을 빚어보는 '조물조물 도자기 화분', 초벌 머그컵에 자연의 이미지를 그려 완성하는 '식물을 담은 도자기 컵', 그리고 향후 선보일 '옹달샘 탐정대·도전! 수생식물 수호작전'까지— 손으로 빚고, 색을 입히고, 직접 걸어보는 과정에서 자연을 향한 감각이 천천히 확장된다.



03. 숲의 기억을 담은 작은 조각 '산불피해목 키링'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가든샵에서 만날 수 있는 '희망나무 키링'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2025년 산청·영양·영덕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나무·참나무·단풍나무 등을 수집해 새로운 쓰임을 부여한 재생 굿즈다. 피해 지역의 산

림조합과 협력해 확보한 나무는 사회적기업·청년기업의 손길을 거쳐 키링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무마다 서로 다른 결과 색을 그대로 살린 데다, 키링 뒷면에는 사용된 나무의 지역과 수종이 각인돼 있어 '숲이 남긴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손바닥에 들어오는 작은 키링이지만, 한때 숲의 일부였던 나무가 다시 일상의 오브제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산불 피해목 굿즈는 앞으로 사원증 케이스, 받침대, 정원용품 등으로 상품군을 넓혀 숲의 기억을 더 다양한 형태로 이어갈 예정이다.



도시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진 요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일까. 봉화의 깊은 산자락에서 열리는 ‘봉자페스티벌’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축제이다. ‘봉(봉화)’과 ‘자(자생식물)’의 이름을 합친 봉자페스티벌은 지역 농가와 예술인·소상공인 그리고 수목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축제이기도 하다.

글 | 편집실

숲으로 모이고, 지역과 더 가까워지는 축제

- 봉자페스티벌 & 가든하이킹



자연이 머무는 곳

자연이 먼저 우리를 그리워하는 시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에서 열린 봉자페스티벌은 ‘꽃, 별에 그리우다’라는 부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꽃’은 나와 우리 그리고 생명의 순환을 의미하고, ‘별’은 밤하늘의 빛, 자생식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상징한다.

이번 축제의 테마는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자연’이다.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숲, 기후위기로 흔들리는 생태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생식물— 이러한 테마는 조형물과 식재 디자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봉자페스티벌의 식재 디자인 모티브는 ‘도시와 자연이 만들어낸 선’이다. 도시가 공간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낸 직선, 자연이 오랜 시간 쌓아온 곡선. 이 두 선을 대비시키며, 두 선이 공존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현장에는 그린타워, 가든 롤리팝, 은경 모빌, 차원의 아치 등 다양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역과 함께 만든 상생의 축제

봉자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든 축제’라는 점이다. 지역 농가에서 직접 키운 자생식물이 전시의 주인공이 되고, 지역 예술인의 손길로 완성된 작품들이 숲속 곳곳을 채우고 있다. 10월 2일 개막 행사에서는 교향악단 공연과 어린이 동요 독창이 펼쳐졌고, 나태주 시인·한서형 작가·허태임 식물분류학자가 참여한 ‘풀림’ 토크 콘서트도 이어졌다. 야간 행사로 진행된 ‘봉자야(夜)놀자’에서는 무드등 만들기, 마술·풍선쇼 등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지역 농·소상공인이 참여한 '숲을 만드는 플라마켓', ESG아트 특별전시 '별일 없이 꽃 피우는 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봉화의 문화와 산림자원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축제가 완성되었다.

숲을 걷는다는 의미

봉자페스티벌의 여운은 가든하이킹으로 확장되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백두대간 가든하이킹은 10월 25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에서 하루 동안 열렸다. 호랑이처럼 천천히 걷는 4km '어슬렁 코스', 금강송 숲길을 따라가는 6km '으르렁 코스', 백두대간의 하늘 가까이로 올라가는 20km '어흥 코스'가 참여자를 맞이했다.

특히 숲길에서 펼쳐지는 악기 공연과 스탬프 투어, 호랑이 특별해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곳곳에 배치되어 참가자들 스스로 숲을 관찰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행사 기간에는 봉화 사과 홍보 및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지



역특산품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었다. 올해는 2,000여 명의 참가자 전원에게 봉화 사과가 제공되었고 완주자에게는 메달과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또한 참가비 1만 원 중 절반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다시 쓰이도록 한 구조를 통해서, 가든하이킹의 '상생철학'을 증명하였다.

**자연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통해 자연을 지키는 축제**

봉자페스티벌과 가든하이킹은 단순한 관광 행사가 아니다.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초대하고, 자연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공공 자연축제'의 새로운 모델이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은 2019년 첫 행사

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 33만 명을 넘기며, 지역과 함께 자라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는 봉화의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역 임·농가가 자생식물을 직접 재배해 축제에 공급하는 구조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수입을 만드는 선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3개 농가가 참여해 2,0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꽃 한 송이를 키우는 일이 지역을 지탱하는 힘이 된 셈이다.

이러한 자생식물 축제는 경제적 의미를 넘어 '우리 지역엔 이런 꽃이 있구나', '우리 아이가 보는 이 풍경이 우리 고장의 자연이구나'라는 작은 자부심도 만들어낸다. 그 자부심은 결국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다.



봉화군의 가을이 깊어가던 날, 봉자페스티벌과 가든하이킹의 열기가 산자락을 가득 채웠다. 지역 농가와 상인, 예술가, 주민들이 함께 움직이며 산골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봉자페스티벌의 복직임 속에서도, 가든하이킹의 길 위에서도,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서 봉화의 이름을 알린 봉자장터에서도— 그 모든 현장에는 묵묵히 준비하고 뛰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봉화를 조금 더 빛나게 만든 이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고객센터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 편집실, 사진 | 최병준

‘봉자’ 비하인드! 봉화에 활기를 채운 숨은 주역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고객센터실

우리가 건네고 싶은 이야기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면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하 수목원)이 가장 오래 붙들고 고민한 질문은 하나였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건넬 것인가.” 기후위기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지켜야 할 것들, 다시 연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올해 봉자페스티벌의 주제를 <꽃, 별에 그리우다>로 정했다.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ESG ART 특별전시’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별일 없이 꽃 피우는 중>이라는 주제가 탄생했다.

“<꽃, 별에 그리우다>는 시적이며 복합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요. 여기서 ‘별’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별은 수목원이 지켜야 할 별이 될 수도 있고, 도시화로 잃어버린 자연, 백두대간의 상징인 호랑이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일 수도 있어요. ‘꽃’은 결국 지켜내고 싶은 마음,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요. 별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지켜야 할 자연과 미래가 함께 담겨 있죠.” - 임새람 주임

“꽃이 별일 없이 피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담겨있어

요. 농가, 예술인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그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 박선우 주임

‘어슬렁 코스’의 탄생

올해 가든하이킹은 기존 2개 코스에서 3개 코스로 확대되었다. 명칭 또한 수목원만의 정체성을 담아 백두대간 ‘호랑이’ 콘셉트로 코스명을 재정비했다. 어흥 코스(20km), 오르렁 코스(6km) 그리고 어슬렁 코스(4km)까지. 특히 신규 코스인 어슬렁 코스는 수목원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는 배리어프리 하이킹으로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게 계획되었다.

“코스 이름을 정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Sky, Forest 같은 영단어를 혼용한 명칭도 아이디어로 나왔지만, 국립백두대간수목원만의 정체성을 담길 원했어요. 그러다 문득 ‘옛날 이곳에도 호랑이가 살았을 텐데... 그 호랑이가 지금의 하이킹 코스를 걸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했어요. 백두대간을 누비던 호랑이의 발걸음과 울음소리를 이미지화해 ‘어흥-오르렁-어슬렁’이라는 재미있는 이름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코스 곳곳을 어슬렁



임새람 주임
봉자페스티벌 축제 기획 및 운영

강한울 주임
백두대간 가든하이킹 기획 및 운영

박선우 주임
ESG ART 전시 기획 및 운영,
봉자장터 관리 및 운영지원

거리며 등장하는 호랑이 퍼포먼스도 준비했어요. 호랑이 탈을 쓰고 숲 사이에서 “어흥!”하고 튀어나오거든요. 진짜 코스 안에 호랑이가 있는 것 같아서, 참가자들이 엄청 즐거워하셨어요.” - 강한울 주임

예측불허, 아찔했던 순간들

세심하게 준비한 축제였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예상 밖의 상황을 만든 프로그램은 스탬프 투어였다. 전시원을 따라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구절초 로고가 새겨진 유리컵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인기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유리컵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임새람 주임은 재고 상황을 확인하느라 하루 종일 현장을 뛰어다녔다.

“스탬프 투어가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원래는 수량 제한이 없었는데 ‘이러다 정말 이틀 만에 다 없어지겠다’ 싶어 부득이하게 하루 제공 수량을 한정했어요. 그 부분은 너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 덕분에 다음 해엔 더 충분히,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 임새람 주임

가든하이킹 준비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다. 행사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 가장 긴 ‘어흥 코스’ 한가운데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다. 고심 끝에 행사 일주일을 남기고 코스 일부를 급히 변경해야 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나무가 딱 그 길을 가로질러 넘어졌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안전’이니까요. 다행히 빠르게 우회 동선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코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 강한울 주임

봉화의 자생식물이 도시로 향한 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화군 자생식물의 유통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자장터’를 처음 운영했다. 4월 서울식물원 해봄축제, 10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봉자장터’는 봉화 지역농가가 도심에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 판로를 넓히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봄과 가을의 장터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개화시기에 맞춰 꽃이 풍성한 4월과 달리, 10-11월 장터가 다가오자 농가의 한숨이 깊어졌다. “가져갈 꽃이 없다”는 고민 때문이었다.

“특히 서울 청계광장 봉자장터는 걱정이 정말 컸어요. 내부 회의도 수없이 했죠. 그런데 막상 장터 날이 되자 걱정이 무색할 만큼 국화, 양치식물 그리고 직접 포장해온 구근과 씨앗까지, 농가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청계광장은 유동인구도 많고 외국인 방문객까지 물리는 장소라 부담이 컸는데, 선생님들께서 영어 응대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현장 호응도 좋았고 결과적으로 청계광장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어요.” - 박선우 주임

올해 봉자장터의 가장 큰 성과는 단순한 매출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참여한 농가들은 점점 소비자 취향과 시장 흐름을 직접 체감하며, 스스로 자신감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어떤 식물이 어디서 잘 팔리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중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축제·장터·문화행사·판로 확장 등 다양한 지방소멸대응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봉자페스티벌 기간에는 봉화군 정주 인구의 3.4배에 달하는 8만 8,000여 명이 수목원을 찾았고,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한 플라마켓 매출도 약 1억 원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 지역 예술인 역시 축제 무대를 통해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며 활동 폭을 넓혔다. 또한 봉자장터를 통해 어떤 농가는 안동시 탈춤페스티벌 화단 조성, 식물 납품, 사후관리 계약까지 성사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작년부터 수목원 인근 식당과 손잡고, 축제 방문객에게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쿠폰’을 제공했어요. 저희는 참여 식당들을 소개하는 ‘지역 맛집 지도’를 만들어 축제장 곳곳에 붙였고요. 덕분에 마을 식당의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죠. 올해는 식당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 쿠폰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논의했어요. 작년엔 식당마다

혜택이 제각각이라 쿠폰복에서 한 장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모든 식당이 공통으로 쓰는 쿠폰 한 장으로 통일했고, 뒷면엔 참여 식당 이름을 꼭 적었어요. 훨씬 깔끔하고, 종이도 아끼고, 홍보 효과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 임세랑 주임

“가든하이킹 행사 때 봉화 사과를 알리는 판매 부스를 함께 운영했어요. 참가비의 50%를 봉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구조라, 지역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 강한울 주임

더 아름다운 ‘봉자’를 향해

축제와 행사를 모두 마치고 난 뒤, 세 직원들의 마음엔 여러 감정이 함께 남았다. 잘 마무리되었다는 뿌듯함,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내년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봉자페스티벌, 가든하이킹, 특별전시, 봉자장터 — 그 모든 과정에서 쌓인 경험은 올해의 끝이 아니라, 다음 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배움의 기록이 되었다.

“올해 처음 시도한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단체복이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를 더 확장해보고 싶어요. 사용 후 폐기되는 현수막을 리사이클

링해 파우치를 만들고, 축제장 연출에도 친환경 소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요. 현수막이나 목공 자재가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게 늘 아쉽더라고요. 축제는 잠깐이지만, 그 뒤에 남는 건 쓰레기가 아니라 ‘가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 임세랑 주임

“가든하이킹 접수처에 인파가 몰리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엔 사전 예약자에게 번호표와 준비물을 미리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도입해, 현장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강한울 주임

“봉자장터를 진행할수록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더라고요. 올해는 대부분 비닐포트 그대로 판매했는데, 내년에는 장터 안에 분갈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원하면 그 자리에서 화분에 바로 심어 드리고 체험도 곁들이는 거죠. 말 그대로 ‘원스톱 장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우 주임

올해의 시행착오와 작은 성과들은 결국 내년을 위한 ‘밑그림’이 된다. 각자의 업무 역할은 다르지만 세 사람의 바람은 같다. 올해보다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지역과 단단히 이어지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이 쌓여 내년의 봉화는 분명 올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으로 피어날 것이다.



바쁜 시기가 이어질수록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더 커진다. 케이크 클래스에 모인 한수정 직원 네 명도 마찬가지였다. 케이크를 들고 돌아갈 사무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동료들을 떠올리며... 이날의 플라워 케이크 클래스는 단순한 만들기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함께라는 마음을 빛는 작은 휴식이 되었다.

글 | 편집실, 사진 | 최병준

서로를 생각하며 케이크를 빛는 시간

- 한수정 직원들의 플라워 케이크 만들기 @세종시 '제이케이크아트'



지금 여기, 한수정

국립세종수목원 안전환경실 박유진 주임

국립세종수목원 운영지원실 이서영 대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태복원실 박소희 주임

국립세종수목원 식물소재사업실 강지우 주임

색을 고르는 일

가장 멀리 봉화에서 온 박소희 주임이 도착하고,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수업이 시작된다. 강사는 샘플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을 건넨다.

“오늘 만들 꽃은 조금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자연물은 완벽하지 않아도 예뻐요. 중요한 건 색이에요. 예쁜 색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제야 모두 앞에 놓인 하얀 생크림을 바라 본다. 말 그대로 ‘빈 캔버스’ 같은 크림. 조색볼에 크림을 뜨고, 색소통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손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박소희 주임은 메리골드를 닮은 선명한 오렌지를, 강지우 주임은 따뜻한 살구색을, 이서영 대리는 좋아하는 프리지아를 떠올리며 레몬빛이 도는 노랑을 골랐다. 박유진 주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휴대폰을 꺼내 파란 튤립 사진을 확인한다.

“저는 파란색을 골랐어요. 파란 튤립을 가장 좋아해서요.”

분홍, 살구, 노랑, 하늘색— 조색볼 안에서 크림이 몇 번이고 뒤집히고 섞일 때마다 각자의 ‘오늘’도 한 겹씩 색을 입으며 더 또렷해진다. 하지만 막상 섞고 나면 기대했던 색과 다르게 나올 때도 있다.

“괜찮아요. 자연물은 한 가지 색이면 오히려 플라스틱 같아 보여요. 다른 색소를 더 넣어보기도 하고 옆 사람의 크림을 섞어보기도 하세요. 여러 색으로 섞일수록 더 예뻐져요.”

색을 고르는 일은 결국 완벽한 색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한다. 어느새 웃음소리보다 살짝 떨리는 숨과 크림을 섞는 조용한 사각거림이 더 크게 들리고 있었다.



처음 짜보는 꽃, 서툰 손길을 받아들이는 연습

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제 진짜 ‘꽃’ 만들기가 시작된다. 강사는 짤주머니를 살짝 들어 보이며 시범을 보여준다.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둥을 세워야 해요. 크림으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연필로 그림 그리듯이 꽃잎을 짜는 거죠.”

말로 들으면 쉬운데 막상 해보면 손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기둥을 세우는 것도, 짤주머니 끝의 팁 방향을 맞추는 것도,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모두 처음이다. 짤주머니 끝에서 나오는 크림은 힘을 조금만 달리 해도 꽃 모양이 달라진다. 강지우 주임이 팁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때 이서영 대리가 몸을 기울여 조용히 알려준다. 처음엔 서툰 손끝이 조금씩 길게 찾기 시작한다. 꽃잎이 한 겹, 또 한 겹 올라가면서 모양이 갖춰지고, 능숙해질수록 꽃들은 더 풍성해진다.





메리골드를 상상했지만 미묘하게 다른 '나만의 노란 꽃'. 오늘 만든 꽃들은 결국 그 사람의 손,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리듬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케이크 위에 작은 정원을 심다

트레이 위에 꽃이 가득 모이자, 이제는 케이크 위에 꽃들을 심는 시간이다. 하얀 생크림 케이크가 각자의 자리 앞에 놓이고, 테이블은 이제 '정원 가꾸기'의 장면으로 변한다.

“모든 꽃이 다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못생겼다고 느껴지는 애들은 밑으로 깔고, 마음에 드는 애들은 위로 보내 주면 돼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화단에 꽃을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을 살짝 잘라내고 가위 끝을 넣어 꽃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하얀 케이크 위로 옮겨 놓는 순간 작은 탄성이 새어나온다. 듽성듬성 놓인 꽃들 사이로 다시 꽃을 엮고, 꽃들 위에 한두 송이를 더 올려 입체감을 준다. 꽃이 모두 자리 잡고, 수술과 잎사귀가 하나씩 더해지자 케이크는 마침내 '완성된 정원'의 모습을 갖춘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글씨 쓰기'가 남았다.

“이 케이크, 누구랑 같이 드시고 싶으세요?”

“의도치 않게 겹꽃이 됐네요. 갑자기 맨드라미가 돼버렸는데요?”

이서영 대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트레이 위 작은 꽃송이들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이루며 누워 있다. 처음 고른 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혹은 전혀 다른 채도의 색을 다시 섞는다.

“이제야 하고 싶은 색을 만났어요.”

그렇게 꽃들은 점점 각자의 '성격'을 갖기 시작한다. 프리리아를 꿈꿨지만 맨드라미처럼 풍성해진 꽃, 파란 튤립을 떠올렸지만 어쩌다 파란 수국 느낌으로 흘러간 꽃,

들을 떠올리며 “발표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짧은 응원을 적었다.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동료들과 나눠 먹고 싶어요”

네 사람 모두, 결국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MINI INTERVIEW



이서영 대리

케이크 만들기는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시작하고 나니까 금방 집중하게 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분들을 조금 더 알게 된 자리여서 더 좋았습니다. 이 케이크는 운영지원실 분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박유진 주임

케이크 만들면서 제 취향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파란 튤립을 좋아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파란색에 손이 가더라고요. 이 케이크는 안전환경실 분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강지우 주임

오늘 막상 해보니, 제 손이 많이 서투르다는 걸 새삼 느껴요. 오늘 인턴 분들이 마지막 발표를 하거든요. 준비한다고 며칠 동안 정말 고생해서... 이 케이크는 그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박소희 주임

멀리서 오긴 했는데, 그만큼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부서 분들이 다들 케이크 기다린다고 하셔서 내일 바로 들고 가서 같이 먹을 생각이예요!





들판의 멀쩡한 나무보다 절벽과 암반처럼 혹독한 자리에서 살아남은 나무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척박함을 견디고도 잎을 틔우는 자연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분재는 그러한 자연의 생애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압축해 보여준다. 살아 있는 가지와 말라버린 줄기의 흔적이 함께 뒤엉켜 하나의 생애를 품는 모습. 유수형 교수는 “분재의 본질은 결국 자연”이라고 말한다.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 척박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의 모습. 그 이야기가 한수정이 지향하는 수목원·정원의 철학과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글 | 편집실, 사진 | 최병준

자연이 걸어온 시간의 흔적을 가까이에 두는 일

- 분재 전문가 유수형 교수

영화 <어쩔수가없다> 속 분재

유수형 교수의 이력은 조금 특이하다. 분재로 시작해 조경과 수목원의 마스터플랜까지 영역을 넓혔고, 또 갤러리, 영화, 예술,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며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그 가운데 최근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다. 그는 영화에서 미술 파트 ‘분재’를 담당했다.

흥미롭게도, 주인공 만수(이병헌)의 취미는 원래 분재가

아니었다. 그러다 인물의 집요함, 통제 욕망, 내면의 긴장을 드러낼 수 있는 오브제를 찾는 과정에서 분재로 방향이 바뀌었고, 유 교수는 이에 맞는 분재를 직접 설계하고 선별했다. 영화 속에는 유 교수의 분재 인생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나무가 등장한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던 장면이었지만, 박찬욱 감독이 하나의 분재를 보고 새로운 컷을 만들어냈다. 극 중 만수의 아들이 거대한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장면— 실은 작은 분재를 40배 확대해



주인공 만수(이병헌)의 온실 속 분재



10여 년 전 유수형 교수가 스승의 나무로 만든 분재. 영화에서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유수형



살아 있는 나무를 접목해서, 돌판 위에 하나의 숲처럼 다시 구성했어요.”

죽은 줄기로는 바람과 시간의 흔적을, 살아 있는 새 가지와 잎으로는 다시 시작되는 생명을 보여주는 작업. 그에게 분재는 ‘살아 있는 나무만 아름답다’는 통념을 뒤집는 예술이다. 이런 시선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생식물을 지키고, 산불과 기후위기 속에서 종자를 보전해 다시 숲을 일으키려는 한수정의 역할과도 통한다. ‘죽어가는 숲’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숲’을 상상하는 관점이다.

나무를 아는 조경 예술가, 사유원에서 배운 것들
유수형 교수는 한때 5년 동안 대구 ‘사유원’의 기반 조

성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사유원 회장은 수집한 나무들을 맡길 사람으로 ‘나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나무를 정확히 알고 옮겨 심고 관리해줄 사람, 그 역할을 맡은 이가 유 교수였다. 그가 현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땅 속’을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조경하는 사람들은 흙 위의 나무를 주로 보지만, 저는 분재를 했기 때문에 흙 아래 뿌리를 먼저 봅니다. 뿌리의 모습만 봐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또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는 수십억 원이 드는 토목식 조경 대신, 흙과 지하수 흐름을 먼저 읽고 기반을 다지는 방식을 선택했다. 좋은

CG로 구현한 것이다. 그 나무는 유 교수가 젊은 시절 스승의 수업에서 만났던 ‘나무’에서 시작된다.

“30년 전에 스승님이 회원들 실습용으로 쓰셨던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여 년 전에 우연히 분재 경매장에 갔는데, 세상에... 엉망진창이 된 나무 몇 그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거 그 나무다.’”

남들이 보기엔 영커버린 가지와 방치된 흔적뿐인 ‘애물단지’였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스승의 손길과 시간의 흔적을 읽어냈다. 그는 나무를 모두 사들였고, 망가진 것들 중에서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몇 그루만 골라, 지금의 대표작을 만들었다. 스승의 손길이 닿았던 나무를 제자가 다시 되살리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훗날 스크린 속 거대한 존재감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다.

‘죽은 나무’에서 시작된 새로운 숲

유수형 교수가 추구하는 분재의 미학은 한 마디로 ‘자연미’다. 특히 그는 척박한 환경에서 겨우 살아남은 나무,

혹은 이미 죽어버린 고사목에서 강한 영감을 받는다.

“20대 때 지리산 종주를 했는데, 천왕봉 밑에 고사목 군락지가 있었어요. 불에 타 죽은 큰 나무들 사이로 작은 나무들만 남아 있었는데, 석양 속 그 풍경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30년쯤 지나 다시 가봤더니, 그때 보았던 고사목들은 거의 다 사라졌더군요. 죽은 나무들은 결국 비바람에 썩고 부서져서 사라지는 게 자연이니까요. ‘아, 이게 자연이구나. 죽은 나무마저 시간 속에서 사라져 가는 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 장면은 그의 안에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훗날 일본의 한 분재원에서 죽은 나무 더미를 보았을 때,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유 교수는 고사목들을 한국으로 가져와 살아 있는 나무와 함께 한 화분에 심어, 지리산의 기억을 작품으로 옮겼다. 이 작품 또한 영화 속 만수의 온실 세트에 놓이기도 했다.

“보통은 죽은 나무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죽은 나무에서 또 다른 풍경을 봤어요. 그래서



흙을 덮어 씌우기보다 기존의 토양 조건을 살리고, 물길을 조정해 나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전략이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리기다소나무 숲이다.

“20만 평쯤 되는 산의 80%가 리기다소나무였는데 ‘쓸모없는 나무’라며 모두 베어내고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간벌과 가지치기를 제안했습니다. 잘라낼 나무와 살릴 나무를 일일이 고르며 공간과 거리감을 조절해,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침엽수 정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을 갈아엎는 대신, 나무 하나하나의 장점을 찾아 살리는 방식으로 숲을 다시 설계한 사례죠.”

그의 철학은 분명하다.

“완벽한 나무는 없습니다. 각자 가진 장점을 찾아 살려주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자연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경험은, 기존의 숲과 토양을 ‘리셋’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존중하며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가는 K-정원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분재와 K-정원, 그리고 한수정이 만나는 지점

유수형 교수는 한국 분재의 차별점을 ‘자연미가 더 극대화된 형태’라고 말한다. 일본 분재가 정교하게 정형화된 미를 추구한다면, 한국 분재는 문인목(文人木, 선비나무), 모아 심기처럼 여백과 비정형성을 살린다.

“분재의 본질은 자연이고, 그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자연스러운 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거칠고 자연스러운, 원래 거기 있었던 것 같은 모습에 마음이 더 갑니다. 자연은 결국, 사람보다 더 길게 살아남는 존재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자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앉을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는 한수정이 말하는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의 방향성과도 같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나무의 모습에서 회복의 서사를 읽어내고, 죽은 나무마저 새로운 작품과 숲으로 되살려내며 공존의 경관을 만드는 태도. 한수정이 자생식물과 종자를 지키며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지향점과 닮아 있다. 유수형 교수의 분재는 그 철학을 작은 화분 안에 압축해 보여주는 또 하나의 ‘K-정원’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의 글로벌 허브로



지금 여기, 한수정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역 불균형은 이제 한 세대만의 과제가 아니다.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된 이 변화의 시대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 글로벌 허브'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이번 비전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수목원과 정원의 역할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지난 8월에 열린 신(新)비전선포식에는 정부, 공공기관, 지역사회, 민간기업, 농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정은 국가적 자산인 시드볼트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전 국토의 30%를 보호하고, 훼손 지역의 30%를 복원하는 국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도시생태계 개선과 탄소 흡수 확대를 실천하는 등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공·사립 수목원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AI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식물관리 체계도 함께 논의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이번 비전이 구성원 모두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고민하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한수정은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세상,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영전략체계(2026-2030)

미션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가치 확산으로 모두의 행복에 기여			
비전 2030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 글로벌 허브			
핵심 가치	전문성 Knowledge	개방성 Openness	실천력 Action	녹색성장 Green Growth
	청렴·책임 Integrity			
경영 방침	고객만족 경영	동반성장 경영	성과지향 경영	안전신뢰 경영
2030 경영 목표	산림생물 보전·활용 증진	수목원 서비스 확산	정원문화 및 산업 선도	공공가치 실현
	보유식물종 1만종 + 산림생물자원 활용지수 1등급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 + 서비스 수혜자 300만명	정원효용성 확산 90점 + 정원소재개발 300건	중대재해 발생 Zero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이행 100%
4대 전략 목표	산림생물보전·복원 체계 강화 및 활용 확대	국민체감 수목원 서비스 고도화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영 선도
12대 전략 과제	①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 안전망 구축	④ 그린·디지털 전시관람 서비스 실현	⑦ 정원 인프라 및 정책 지원 확대	⑩ AI 전환을 통한 업무 혁신
	② 국가 산림생태 복원 체계 강화	⑤ 수요 맞춤형 수목원 교육 서비스 확대	⑧ 국민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	⑪ 지속가능한 ESG 경영 고도화
	③ 산림생물자원 활용 가치 증진	⑥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성장지원 강화	⑨ K-정원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	⑫ 안전·윤리 경영 실현

2025 Vol.15

한수정 비상임이사, 새로운 비전과 함께 '모두의 행복'에 동참

비전선포식에서 토론회도 함께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한수정의 비상임이사들이 강연자와 토론자로 직접 참여해, 미래환경, 정책변화 등에 대응한 수목원·정원의 역할 및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Q1. 이번 새로운 비전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 글로벌 허브'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김주환 "조직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낸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신 정부의 정책방향은 물론 세계적 경향과 결을 함께 반영한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제시라고 봅니다."

Q2. 새로운 경영전략체계 수립 이후, 이사회나 경영 현안 논의에서 달라진 점이나 새롭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주환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부 수동적으로 처리되던 현안의 진행과정이 다소 적재적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국내의 수목원·정원의 네트워크 고도화 과정을 통해, 한수정이 K-수목원·정원 글로벌 허브로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애란 "한국이 글로벌 중심의 다방면 강국으로 성장한 만큼, 이 시대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수목원·정원 분야의 문화확산과 관련 산업의 진흥은 미래를 이끄는 주요자산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Q3. KoAGI(지식·개방·실천·녹색성장·청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명석 "수목원과 정원은 자연과 사람을 잇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KoAGI가 가장 중점을 둘 가치는 생물다양성을 지키면서 그 자원의 가치를 생활 속 혜택으로 넓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식물을 보전·조성·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고유 식물자원을 조사·기록해 잠재력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잘 만든 수목원과 정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망이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현장에서 쌓은 지식을 사회와 산업으로 돌려주는 선순환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애란 "저는 '개방과 실천'이 한수정의 존재 이유와 비전의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견지해 온 지식경영, 녹색성장, 청렴의 핵심가치를 계승하며 새 시대에는 국민을 향한 열린 경영을 통해 소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앞으로 비상임이사로서 기관의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명석 "40년 넘게 산림과학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몸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KoAGI가 자연과 사람을 잇고, 자원을 통해 만든 가치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로서는 연구·행정·산업을 함께 이해하는 시각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조언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KoAGI의 보유자원이 더 큰 사회적 가치로 전환되도록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송성호 "핵심가치 중 '개방성, 청렴·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상호 신뢰와 조직 몰입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노사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수정만의 ESG 활동을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Q5. 새로운 경영전략체계와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이나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성호 "시를 기반으로 기후 재난이 화두로 떠오르는 환경에서 노사가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관을 지키는 신뢰의 시스템, 내부통제

한수정은 2023년부터 내부통제를 운영하며 투명한 행정을 강화해왔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여온 심상택 이사장을 만나 그 의미와 방향을 들어보았다.

Q. 한수정이 추구하는 내부통제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리 기관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높은 윤리의식, 투명한 책임감,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내부통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부통제는 통제를 위한 통제도,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도 아닙니다. 누구나 명확한 기준 안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의 울타리입니다. 때로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조직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입니다."

Q. 최근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 내재된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내부통제 '3선 방어선 모델'을 새롭게 확립했습니다. 내부통제 총괄업무를 윤리감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각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내부통제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했습니다. 2025년 세 차례의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어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과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외부 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네 차례 전 직원 대상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자율적 내부통제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넷째, 산림청 산하기관 최초로 AI 기반 내부통제 리스크 프로파일(RCM)을 도입하였습니다. 기관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식별한 리스크에 대해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에 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Q. 앞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나요?

"내부통제는 모든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는 절대적 장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가장 현명한 시스템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 이를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내부통제를 단순한 규정이나 절차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의 업무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부통제 관리체계(3선 방어체계)



전남 해남군 산이면 남도의 끝, 바다와 산이 맞닿는 그 경계에 산이정원이 있다. 지도로 보면 마치 처음부터 초록으로 물든 땅 같지만 한때는 바닷물이 드나들던 땅이었다. 섬 사이를 흐르던 바다가 차츰 메워져 땅이 되고, 그 땅 위에 꽃과 나무, 바람이 어우러져 지금의 산이정원이 피어났다.

글 | 편집실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정원이 되는 곳

산이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산이정원

바다였던 땅, 생명을 품다

전남지역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은 땅의 역사를 기억하고, 땅의 생명력과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변화하며, 자연과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정원을 꿈꾼다. 산이정원은 크게 기억, 미래, 생명 3가지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바다의 숨결과 땅의 이야기를 품은 기억 존은 이 정원의 시작을 말해준다.

거대한 파도를 떠올리는 맞이정원의 정문을 지나면 마치 바닷물이 갈라지듯 훑날리는 사초들이 길게 늘어서 방문객을 맞이한다. 한때 바다였던 이곳이 이제는 생명의 초록으로 물든 풍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비롭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풀잎들은 물결처럼 흔들리며 이 땅이 품고 있는 오랜 기억을 속삭이는 듯하다.

하늘마루에 오르면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넓은 잔디밭 끝에, '브릿지 오브 휴먼(Bridge of Human)'이 두 팔을 벌린 채 서 있다. 몸을 숙여 다소곳이 인사하는 '그리팅 맨'으로 잘 알려진 조각가 유영호의 작품이다. 거인의 두 팔이 긴 다리가 되어, 그 위로 다양한 인종의 42명 인물이 오가고 있다. 이 작품은 인간과 자연, 지구와 환경, 그리고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해질 무렵, 노을빛이 작품의 굴곡을 타고 스며들면 그 장면은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찰나처럼 황홀하다.

노리정원 언덕 위에는 한 그루의 동백나무가 고요히 서 있다. 150년의 세월을 견딘 이 나무는 한 때 척박한 밭 한가운데서 소를 매어두던 그늘이자 마을의 쉼터였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농기계에 부딪히며 나무는 상처를 입고,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가 부러졌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마을주민은 선조의 마음을 잊겠다는 뜻으로 이 나무를 산이정원에 기증했다. 정원은 오랜 시간의 치료와 보살핌을 통해 이 나무를 지금의 자리로 옮겨 심는 데 성공했다. 이제 동백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다시 꽃을 피운다. 방문객들은 이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잠시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정원을 키우는 또 다른 손길

지난 9월 27일, 산이정원은 제30호 민간정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 이사장, 명현관 해남군수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짧은 시간 안에 산이정원이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한수정의 손길이 있었다.

한수정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민간정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이정원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정원 디자인과 식물 관리에 대한 전문 컨설팅은 물론, 정원을 위한 가든매니저 교육과정과 정원 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전문가를 길러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으로 정원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이정원에는 지금까지 털부처꽃, 무릇, 터리풀 등 107종 7만 7,450본의 식물이 한수정의 손을 거쳐 보급되었다.

이처럼 한수정의 손길이 닿은 산이정원은 이제 지역의 자연과 사람을 잇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고 있다.

주소 : 전남 해안군 산이면 구성리 664 산이정원
동계 운영시간 : 08:00~18:00 (17시 입장마감)
주말 일반요금 : 12,000원



가을과 겨울, 수목원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



분홍장구채

개화시기 : 10~11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암석원)

분홍색 꽃이 피는 장구채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바위틈에 주로 자라는 잎겨드랑이에서 굵은 가지가 나와 길게 자라 줄기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극히 일부 지역에만 분포합니다.



총꽃나무

개화시기 : 9~11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암석원 가는 길)

총꽃나무는 그 이름처럼 꽃들이 '총을 이루어' 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 식물로도 널리 이용되지만, 군락을 조성해 두면 많은 꿀벌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밀원식물이기도 합니다.



두메부추

개화시기 : 8~10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한국자생식물원(희귀식물원)

두메부추는 사람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산골에서 자라 '두메부추'라 불립니다. 특히 두메부추는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러시아·중국·몽골 등에 분포하는 가까운 계통의 종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울릉도 특산의 새로운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예부터 밥상과 약재로 두루 쓰여 온 귀한 자원입니다.



벌개미취

개화시기 : 8~10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한국자생식물원(비안의언덕)

원래 깊은 산 계곡에서 자라는 식물이지만, 연보랏빛 꽃잎과 노란 꽃망울의 풍성한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나라 특산종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도심 곳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꽃으로 도로를 장식하자"는 움직임이 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특별한 사연을 지닌 꽃이기도 합니다.



해국

개화시기 : 9~11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세종수목원(큰소나무길, 한국전통정원)

해국은 이름처럼 바다 가까운 땅에서 만나는 꽃입니다. 꽃잎은 연보랏빛에서 흰빛까지 은은하게 펼쳐지고, 가운데는 노란 꽃술이 또렷하게 살아 있어 멀리서 보면 파도 사이에 반짝이는 햇살 같기도 합니다.



은목서

개화시기 : 10~11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세종수목원(희귀특산식물원)

은목서는 상록 활엽수로 보통 3~5미터 정도 자라며 때로는 더 큰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은목서의 가장 큰 매력은 가을이 찾아오는 무렵, 잎 사이사이에서 피어나는 작고 순백의 꽃송이와 그 꽃이 퍼뜨리는 맑고 부드러운 향기입니다.



향등골나물

개화시기 : 7~10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세종수목원(한국전통정원, 공유평원)

향등골나물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에요. 잎이 세 갈래로 깊게 갈라지는데, 가운데 주맥이 사람의 '등골'처럼 보여서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연한 자주빛 작은 꽃을 피우며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려준답니다.



노랑코스모스

개화시기 : 7~9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세종수목원(민속식물원)

코스모스라 하면 흔히 분홍, 하양을 떠올리지만, 노랑코스모스는 조금 다릅니다. 꽃잎이 더 두껍고, 색은 금빛 노랑이나 주황빛에 가까우며, 꽃 모양은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죠. 마치 태양의 따스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 멀리서도 한눈에 눈길을 사로잡는 존재입니다.



산사나무

개화시기 : 9~10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정원문화원(텃밭정원, 계류가, 한옥정원)

햇볕이 잘 드는 숲 가장자리, 경사 지대에 자라는 낙엽 작은키나무입니다. 5월쯤이면 산사나무 위로 눈처럼 하얀 꽃이 한꺼번에 핍니다. 꽃이 진 뒤, 계절이 몇 번 더 지나면 산사나무엔 작은 빨간 열매가 맺힙니다. 둥글고 단단한 열매는 늦가을까지 달려 날것으로 먹거나 말려서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금목서

개화시기 : 9~10월

볼 수 있는 곳 : 국립정원문화원(갤러리온실)

금목서의 꽃은 매우 작고, 노랑빛 또는 주황빛 계열의 등황색을 띕니다. 이러한 노란색(황금색) 때문에 '금(金)'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복숭아나 살구를 연상시키는 듯한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가 아주 강해, 꽃잎 하나하나보다 향기로 그 존재를 알리는 나무죠.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글 | 조우(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바로 곁에 한수정

2022년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 세계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손실의 심각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 6만여 수목 중 가운데 약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 중 2,800여 종은 이미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단계에 해당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수년간 자생식물 보전 사업을 가가이에서 관찰하며, 과학적 보전과 실용적 복원, 국제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모범 사례를 목격해왔다. 이는 한국이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한다.

종자정보 빅데이터

생물다양성 보전의 출발점은 정확한 정보다. 어떤 종이 존재하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데

이터 없는 효과적인 보전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생식물 종자정보 구축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산림청의 지원으로 5년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종자 수집을 넘어 종자생물학(seed biology)에 기반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4년 말 기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자생식물 2,171종에 대한 40,374건의 종자정보를 확보했다. 이는 국제종자연구 선도기관인 영국왕립식물원(KEW) 밀레니엄시드뱅크가 2003년부터 20년간 축적한 종자정보데이터베이스(SID) 보유량 182,232건의 약 22% 수준을 불과 4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더욱 주목할 점은 데이터의 질적 수준이다. 구축된 정보에는 종자 형태정보, 저장정보, 활력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종자의 수집부터 저장, 발아, 증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상반기 정식 운영을 앞둔 종자정보 공개 플랫폼 ‘씨앗피디아’는 이러한 데이터를 전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 Crop Wild Relatives) 연구다. 산림으로부터 기원한 재배작물의 야생원종은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미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자원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공주대, 안동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49종 426점의 CWR을 확보했으며, 2025년까지 110종 1,100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금나무(블루베리 원종), 돌콩(콩 원종), 두메부추(양파 원종) 등의 계통분류학적 유연관계 규명은 신종 개발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실제로 돌콩오일과 산마늘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개발 사례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다.

자생식물 복원 인프라

산림복원생태학(Restoration Ecology)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local seed for local restoration’, 즉 해당 지역의 자생식을 종자로 그 지역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유전적 적응력과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종자 공급 인프라가 부족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 구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2025년 5월 준공된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의 진정한 가치는 기후대별·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긴 지형적 특성상 기후대가 다양하게 분포하며, 각 권역은 고유한 식생대(vegetation zone)를 형성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북방계), 국립세종수목원(온대), 국립한국자생식물원(난온대) 등 권역별 공급센터는 생물지리학적으로 합리적인 종자 공급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지역 등 주요 생태축 복원사업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실제 복원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원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피해 지역의 자생식물 종자를 직접 수집하여 복원 소재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UN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범적 접근이다.

아울러 이 인프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생태학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45개 임·농가가 자생식물 위탁재배에 참여하여 약 32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2019년부터 5년간 273개 농가가 참여해 2,388명의 고용과 2,20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전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의 원칙을 입증하는 사례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BGSV)

경북 봉화 깊은 산중, 지하 40m 이상 깊이에 자리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BGSV)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함께 전 세계 식물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두 시설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된다. 스발바르는 농작물 종자 보전에 집중한다면, BGSV는 야생식물 종자 보전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세계 유일의 시설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의 차별화가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2025년 출범한 ‘글로벌 종자보전 지원 프로그램(Global Seed Conservation Grants Program)’은 BGSV가 단순한 저장시설을 넘어 국제 협력의 허브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협력하여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유럽 등 19개국 20개 기관을 1차로 선정했으며, 52개 기관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BGSV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미래 생태계 회복력을 향한 한국형 보전 모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제시한 2030년까지 1만 종의 식물을 보전한다는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한반도 자생식물의 약 70% 이상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이며, 생물주권(biological sovereignty)을 강화하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식물 분포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지금, 자생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은 미래 생태계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의 지속적 축적과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강화, 그리고 정책·과학 인터페이스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보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들이다.

결국 자생식물 한 종, 종자 한 점을 지키는 일은 미래 세대의 생태계 회복탄력성을 담보하는 일이며, 한국이 쌓아 올린 이 보전의 씨앗이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협력의 중심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시카고 교외의 작은 마을 리슬(Lisle)에 자리한 모튼수목원. 100년 전, 미국의 한 산업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수목원은 이제 전 세계 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과학의 현장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2025년, 그 연구의 손길이 한국과 맞닿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모튼수목원이 함께 그려가는 참나무 보존 협력은 지구의 숲을 잇는 국제적 연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글 | 편집실

살아 있는 나무 박물관, 미국 모튼수목원

모튼 가문의 유산

미국 일리노이주 리슬에는 ‘나무의 박물관(Outdoor Museum of Trees)’이라 불리는 모튼수목원(The Morton Arboretum)이 자리하고 있다. 1922년 미국의 대표적인 소금 회사 모튼 솔트(Morton Salt Company)의 창립자인 조이 모튼(Joy Morton)이 자신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서 모튼수목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의 아버지 J. 스티어링 모튼(J. Sterling Morton)은 미국 최초의 식목일(Arbor Day)을 제정한 인물로 ‘나무를 심자’라는 모튼 가문의 신념이 한 세기가 넘어 지금의 모튼수목원으로 이어진 셈이다.

조이 모튼은 이곳을 단순한 정원이 아닌 ‘모든 나무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야외 박물관’으로 구상했다. 그의 뜻처

럼 지금의 모튼수목원은 약 1,700에이커 규모의 수목 중심 식물원으로, 수목 연구·원에·교육·대중 참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도 기관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무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생물종 보전센터(Center for Species Survival)를 보유하고 있다.

숲이 무대가 되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튼수목원을 찾고 있다. 방문객들은 식물과 테마 정원을 거닐며 세계 각지의 나무를 만나고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특별한 계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경험을 새롭게 배운다.

특히 모튼수목원은 매년 두 차례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수목원의 풍부한 자연경관과 식물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야외 조각 전시를 선보인다. 현재는 포틀랜드 출신 예술가 헤더 베가츠(Heather BeGaetz)와 페즈 베가츠(Fez BeGaetz)의 전시 <Vivid Creatures>가 한창이다.

2027년 봄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는 흰꼬리사슴, 여우다람쥐, 파란잠자리, 큰두루미 등 일리노이 북부의 동물을 형상화한 다섯 점의 동물 조각이 전시되어 있다. 겨울이 되면 수목원은 또 다른 무대로 변신한다.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Tree Lights at The Morton Arboretum)'은 올해로 13회를 맞은 상호작용형 조명 전시로, 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색채

와 빛, 음악이 어우러진 1마일(1.6km)의 산책길을 걸으며 방문객들은 계절 음악과 따뜻한 음료를 즐기고 겨울 속에서도 살아 숨 쉬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난다.

과학이 숲을 지키는 방법

모튼수목원의 수목연구센터(Center for Tree Science)에는 3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활동하며 기후변화·병해충·도시환경 변화로 위협받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나무의 생리적 특성과 생존 전략, 번식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도시 숲 관리와 종 다양성 보전,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한다. 또한 청년



“모튼수목원은 전 세계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종인 참나무를 중심으로 연구와 보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수정과 함께 보전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질 코스키 모튼수목원 원장 겸 CEO

”



연구자를 육성하며 차세대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글로벌수목보전프로그램(Global Tree Conservation Program)은 연구·보전·국제 협력을 통해 멸종 위기 나무 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지내보전(*In situ*)과 현지외보전(*Ex situ*)을 함께 추진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평가를 바탕으로 보전이 시급한 종을 선정한 뒤,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의 보호활동까지 이어간다. 특히 생물다양성이 위협받는 지역의 참나무(oak species)를 중심으로, 현지 연구기관 및 보전단체와 협력해 종자 수집, 모목 식재, 생태 복원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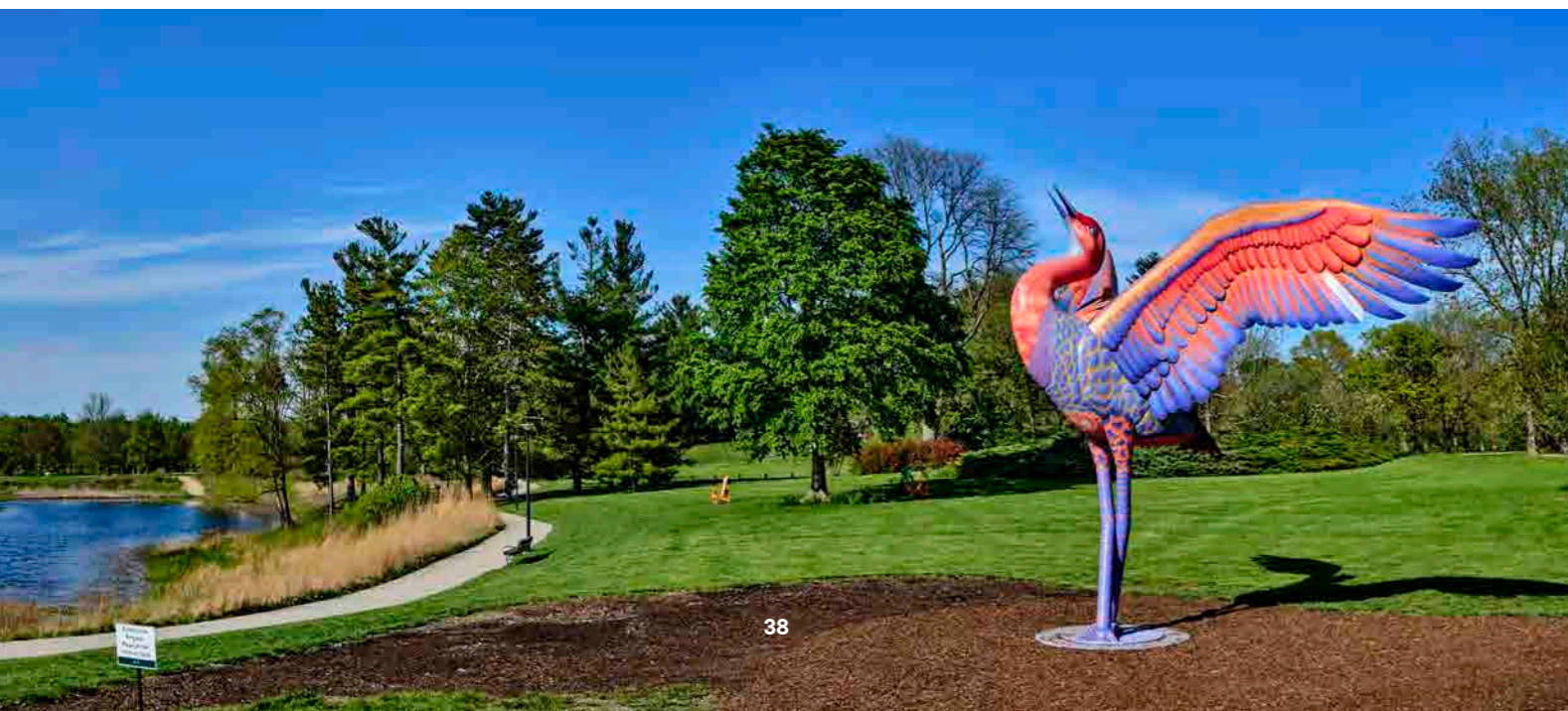
한수정과 함께 꽃피우는 참나무 보전

2025년 9월 23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과 모튼수목원은 참나무 보전 및 학술·전시·교육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대와 아

열대 지역 숲의 핵심 수종인 참나무의 국제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첫걸음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참나무 자원의 공동 연구와 데이터 교류, 보전 인력 교환, 교육·전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대국민 인식 증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한수정은 경북 봉화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참나무 보전원'을 조성하고, 국내외 종자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협약 체결과 함께 열린 '참나무 보전·활용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연구진이 참나무의 수집·관리 전략과 보전 동향을 공유하고, 강원도와 경북 일대의 자생지를 공동 조사해 분포 현황과 종자 보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된 협력은 이제 지구의 숲을 잇는 다리로 자라나고 있다. 숲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지혜를 나누는 일— 그 길 위에 한수정이 함께 서 있다.



독자 QUIZ 이벤트!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독자 의견과 함께 정답을 알려주세요!



2025년 9월 23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미국의 모든수목원은 이 나무의 보전 및 학술·전시·교육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온대와 아열대 지역 숲의 핵심 수종인 이 나무의 국제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첫걸음인데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힌트 한 스푼

<해외 수목원 탐방>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독자 의견과 함께 정답을 맞추신 10명을 선정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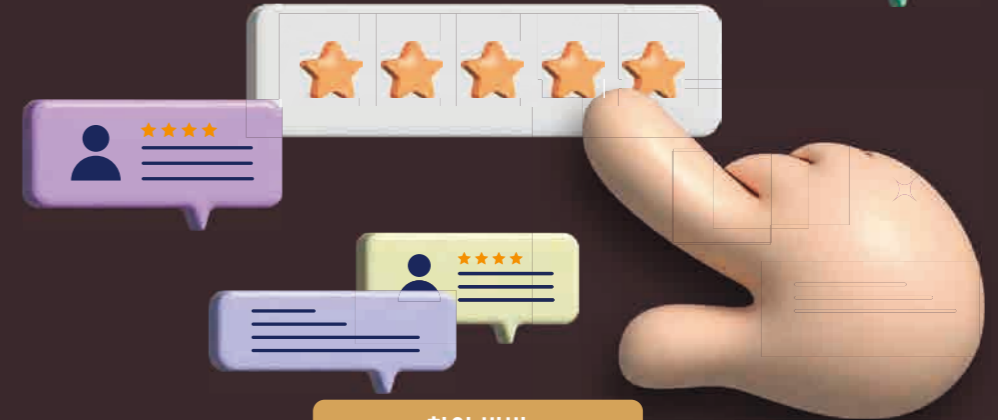
- 참여 기간 : 2025년 12월 15일 ~ 2026년 1월 9일
- 당첨 선물 : 말차 랑드샤 기프트콘(14,000원 상당)
- 당첨 인원 : 10명
- 선물 발송 : 2026년 1월 19일(당첨자는 개별 통보 예정)
- ※ 미 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음

QR코드 스캔 후
정답을 입력해주세요.



사보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녹녹, 자연을 두드리다>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독자의 한마디는 다음 콘텐츠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참여와 독자 의견을
들려주시면, 참여자 중 2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 구글폼 응답 제출



사보 구독하기 클릭



- 참여 기간 : 2025년 12월 15일 ~ 2026년 1월 9일
- 당첨 선물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 당첨 인원 : 20명
- 선물 발송 : 2026년 1월 19일
- ※ 미 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음

